연구소 소식

OECD-KICCE 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목) KICCE-OECD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OECD Starting Strong V :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었다. Yuri Belfali (Head of Early Childhood and Schools Division, OECD)의 주제발표에 이어 원내에서는 박원순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하였다.

KICCE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이미화)는 지난 12월 5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외교센터(서울 양재동) 12층'더 모스트'에서 KICCE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벨기에 겐트대학교 (Ghent University) 사회학과 학과장인 미셸 반덴부룩(Michel Vandenbroeck) 교수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미셸 반덴부룩 (Michel Vandenbroeck) 교수는 이번 KICCE 국제세미나에서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요건(Core Requirements)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강연하고, 최근 다양성의 맥락에서 바라본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2017)를 바탕으로 국가수준, 지역수준, 기관수준, 개별교사 수준에서 구성하는 전문성 체제에 관해서 논의했다.

2017년도 제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2017년도 '제6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에 대한 주제로 이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의 '누리과정 시행 6년, 진단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 및 지정토론을 가졌다.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7일(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3층 세미나실(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을 가졌다. 이번 어린이 안전포럼은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17 KICCE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6일(목요일) 오후 4시부터 4층 대회의실(서초구 외교센터)에서 'KICCE 심포지엄'을 가졌다. 강연자로는 미국 조지아 주립대(Georgia State University)의 개리 빙햄(Gary Bingham) 부교수, 오클라호마 대학교(The University of Oklahoma)의 권경화 부교수가 참석하여 CLASS 유아-교사 상호작용 측정 도구 전반과 정책 수립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백선희(白仙姬) 소장 취임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2월 19일(화요일) 오전 11시, 외교센터빌딩 12층 '더 모스트'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백선희(白仙姬) 소장 취임식을 개최 하였다.

백선희 소장은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6기 위원장,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및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지원분과 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육아정책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는 기관의 대표를 맡게 돼 영광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한 뒤, "연구범위를 보육과 유아교육 중심에

서 확장시켜 저출산 위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정부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기여하겠다"며 "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제1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9일(화) 오전 11시에 외교센터 12층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제1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열린토론회(KICCE Active Listening)는 2018년 2월까지 총 5회로 기획되어 계속될 예정이다.

열린토론회는 육아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열린 귀를 가지고 관련 학계, 정책수요자인 부모, 정책실무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며 연구소에 향한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준한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임소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